

1. 문학과 삶 (1) 상처가 더 꽃이다

[01~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 <상처가 더 꽃이다>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사백 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 등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흑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흑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빠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勳章)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符籍)으로 보이는가

백 년 못 된 사람이 매화 사백 년의 상처를 헤아리라마는

감탄하고 쓸어 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 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

(나) 블로그, '시 읽는 아침'

상처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훈장이든지, 부적이든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상처가 없다면 그것을 극복한 성숙 또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나 봅니다.

이 시를 읽으니 발레리나 강수진과 축구 선수 박지성의 발이 떠오릅니다. 상처투성이지만 그들의 노력을 알기에 그들의 발은 꽃보다 아

름다워요.

(다) 블로그 댓글

군밤: 상처는 고통. 하지만 상처가 주는 교훈이 있어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싹: 친구를 함부로 대해서 그 친구와 멀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친해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아픔이 오히려 저를 성장하게 했어요.

곰돌: 아픈 자리에서 화사한 꽃이 피어나길……. 마음속 상처들이 꽃이 된다면 마음은 화사한 꽃밭이 되겠네요.

도넛: 매화 가지의 뒤틀림에서 귀함을 발견한 시인과 이 시를 알려 준 아침 님께 감사!

㉢

01 (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갈등 상황을 나열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대상의 모습을 다른 사물과 대조하여 강조하고 있다.
- ⑤ 의성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심리를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02 ㉢에 주로 사용된 심상이 나타난 것은?

- 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 정지용, <고향>
- ② 접동 / 접동 / 아우래비 접동 - 김소월, <접동새>
- ③ 나는 온몸에 꽃내를 띠고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④ 봄에는 연녹색 물결 북쪽으로 / 북쪽으로 퍼져 올라간다
- 김광규, <동서남북>
- ⑤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 열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 김종길, <성탄제>

03 (가)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적절한 것은?

- ① 사람들이 고목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모습을 그린다.
- ② 개미들이 어린 매화나무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그린다.
- ③ 사람들이 꽃이 만발한 고목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다.
- ④ 하늘 높이 곧게 뻗은 고목의 가지를 부각하여 그린다.
- ⑤ 사람들이 어린 매화나무에 난 상처의 향기를 맡는 모습을 그린다.

04 (가)의 화자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 ② 부재하는 대상을 간절하게 그리워하고 있다.
- ③ 경험에서 얻은 삶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소중한 대상을 잃은 상실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시적 대상과 대조적인 상황에 놓인 자신의 암울한 처지를 비관하고 있다.

05 ㉠에 관한 반응이 (가)의 시적 화자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가은: 개미들의 바쁜 삶에서 인생의 고단함을 느낄 수 있었어.
- ② 나은: 자기 몸을 내어 주어 개미를 먹여 살리는 고목의 모습이 감동적이야.
- ③ 다은: 고목을 공격해서 양분을 얻는 개미의 모습에서 자연의 비정함을 느꼈어.
- ④ 라은: 새 진물이 번지는 것을 보니 고목이 곧 쓸쓸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서 슬퍼.
- ⑤ 하은: 상처에서 진물이 흘러나오고 개미가 모여들어 버티고 선 고목의 모습이 숭고하게 느껴져.

서술형

06 시인이 (가)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심미적 인식이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 '고목, 상처'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
- '~ 내용에서 ~ 심미적 인식이 드러난다.'의 형식으로 쓸 것

07 (다)의 블로그 댓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곰돌'은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움을 비유적으로 드러내었다.
- ② '새싹'은 시인의 심미적 인식과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댓글을 썼다.
- ③ 댓글을 단 독자 모두는 상처보다 화사한 꽃이 아름답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 ④ 문학 작품에 담긴 작가의 심미적 인식을 파악하고 독자들끼리 소통하고 있다.
- ⑤ 문학 작품에 담긴 작가의 심미적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다.

서술형

08 ㉠에 들어갈 블로그 댓글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 (가)의 '고목'과 (나)의 '발'의 공통점을 밝힐 것
- '~요'의 형식으로 쓸 것

[09~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그 아이와 읍내까지의 오십 리 길을 여행한 것도 5학년 2학기였던 것 같다. 읍내 아이들은 좋은 참고서며 입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겠느냐는 담임의 탄식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장에 오는 책전에 진열된 문제집이나 참고서는 가짓수도 적고, 말하자면 덩핑물로, 내용도 조잡한 것들뿐이었다. 나와 그 아이는 상의하고 또 상의했다. 그러고는 직접 읍내 큰 서점에 가서 문제집이며 참고서를 고르기로 결정했다.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그 먼 길을 어떻게 갔다 오겠느냐며 읍내에 살고 있는 고모에게 부탁하여 사 보내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나는 막무가내였다.

(나) 우리는 그 토요일로 당장 길을 떠났다. 두 시간쯤 걸으니 흰 돛 단 배, 누런 돛 단 배가 점점이 떠 있는 강이 나왔다. 강을 따라 다시 한 시간쯤 가니 살구꽃이 만발한 나루, 나루를 건너니 널따란 채마밭, 채마밭을 끼고 큰길을 또 한 시간쯤 걸으니 읍내였다. 읍내에는 이층집이 즐비하고 많은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병이 나서 삼촌의 등에 업혀 읍내에 들어와 본 일은 있었지만 내 발로 걸어 들어오기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다) 물어물어 서점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거리에 어둑어둑 땅거미가 깔리고, 서점에는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다. 너무 책이 많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점원이 우리에게 찾는 책을 물었고, 우리가 말하자 책을 찾아 주었다. 우리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책값을 냈고, 그 책들을 배낭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이미 한밤중이 되어 있어, 나는 더럭 겁이 났다.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겠어서 가까이 있는 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잠은 고모네 집을 찾아가 자기로 정해져 있었다.

(라) 밥을 시켜 먹고 있는데 ㉡ 옆자리의 아저씨들이 우리가 촌에서 온 것을 알고는 말을 붙였다. 나는 책을 사러 왔다는 말을 하고 찾아갈 고모네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야, 너희들 멀리서 왔구나!” 그러면서 쪽지를 받아 든 그는 “어, 이거 너무 멀잖아.” 했다. 고모네 집까지는 걸어서 한 시간도 더 걸린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군청 직원인 그 아저씨들을 따라가 군청 숙직실에서 자고 아침밥까지 얻어먹었다. 이튿날 다시 서점에 가서 이번에는 동화책들을 뒤졌는데, <포도와 구슬>로 익숙해 있던 현덕의 소설집 《남생이》를 어린이 물로 알고 산 것도 이때다.

(마)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던 것 같다. 먼지가 폭삭대는 길, 강가의 널따란 채마밭, 강바람에 날리던 살구 꽃잎들. 나루터의 늙은 사공, 새파란 강물에 드문드문 박힌 노랑고 흰 돛을 단 배들……. 이때 본 이런 것들은 군청 마당

의 늙은 느티나무와 마음씨 좋은 직원의 웃는 모습, 그리고 현덕의 소설 <군맹(群盲)> 속의 인물들인 만수 또는 점숙의 모습과 함께 아직도 내 뇌리에 짙은 색깔의 그림으로 박혀 있다.

09 이 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여 쓴 글이다.
- ② 정보를 전달하여 독자를 이해시키는 글이다.
- ③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상상해서 꾸며 쓴 글이다.
- ④ 글쓴이의 실제 있는 경험이 담겨 있는 글이다.
- ⑤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 독자를 설득하는 글이다.

서술형

10 '나'가 ㉠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계기를 (가)를 참고하여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 담임 선생님의 말을 바탕으로 하여 쓸 것
- '~(아)기 때문이다.'의 형식으로 쓸 것

서술형

11 이 글에 나타난 '나'의 경험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 ㉣에 들어갈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보기>

읍내 큰 서점에 가서 책을 사기 위해 길을 떠났다.

(㉢)

(㉣)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다.

<조건>

-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여 ㉢, ㉣에 들어갈 말을 (다), (라)를 참고하여 쓸 것
- 각각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쓸 것

12 ㉠에 나타난 ‘나’의 심리로 알맞은 것은?

- ① 목적지인 읍내에 도착했다는 안도감
- ② 고모네 집에서 신세를 지어야 한다는 미안함
- ③ 변화하고 복잡한 읍내의 풍경으로 인한 긴장감
- ④ 배를 타지 못하고 먼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한 원망
- ⑤ 부모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곳에 왔다는 해방감

13 이 글을 읽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의 뛰어난 재능을 타고나야 해.
- ②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
- ③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해.
- ④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실수했을 때는 걱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빨리 잊는 것이 중요해.
- ⑤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다 보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할 수 있어. 어떤 일을 할 때는 양심을 기준으로 그 일이 옳은지를 판단해야 해.

14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심미적 인식을 표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속담을 인용하여 내용을 인상 깊게 전달하고 있다.
- ② 글쓴이의 심리를 풍경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반어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④ 설의 표현으로 글을 마무리하여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 ⑤ 비유 표현을 통해 대상에 관한 글쓴이의 비판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15 ㉠에 관한 ‘나’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친절하고 고마운 분들이야.
- ②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분들이야.
- ③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분들이야.
- ④ 겉으로는 딱딱하지만 마음이 여린 분들이야.
- 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이야.

[16~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사백 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
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흑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
궂다
거무죽죽한 흑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
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빠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勳章)으로 보이
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符籙)으로 보
이는가
백 년 못 된 사람이 매화 사백 년의 상처를
헤아리랴마는
감탄하고 쓸어 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 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

(나) 그 아이와 읍내까지의 오십 리 길을 여행한 것도 5학년 2학기였던 것 같다. 읍내 아이들은 좋은 참고서며 입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겠느냐는 담임의 탄식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장에 오는 책전에 진열된 문제집이나 참고서는 가짓수도 적고, 말하자면 덩핑물로, 내용도 조잡한 것들뿐이었다. 나와 그 아이는 상의하고 또 상의했다. 그러고는 직접 읍내 큰 서점에 가서 문제집이며 참고서를 고르기로 결정했다.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그 먼 길을 어떻게 갔다 오겠느냐며 읍내에 살고 있는 고모에게 부탁하여 사보내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나는 막무가내였다.

우리는 그 토요일로 당장 길을 떠났다. 두 시간쯤 걸으니 흰 돛 단 배, 누런 돛 단 배가 점점이 떠 있는 강이 나왔다. 강을 따라 다시 한 시간쯤 가니 살구꽃이 만발한 나루, 나루를 건너니 널따란 채마밭, 채마밭을 끼고 큰길을 또 한 시간쯤 걸으니 읍내였다. 읍내에는 이층집이 즐비하고 많은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병이 나서 삼촌의 등에 업혀 읍내에 들어와 본 일은 있었지만 내 발로 걸어 들어오기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물어 물어 서점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거리에 어둑어둑 땅거미가 깔리고, 서점에는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다. 너무 책이 많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점원이 우리에게 찾는 책을 물었고, 우리가 말하자 책을 찾아 주었다. 우리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책값을 냈고, 그 책들을 배낭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이미 한밤중이 되어 있어, 나는 더럭 겁이 났다.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겠어서 가까이 있는 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잠은 고모네 집을 찾아가 자기로 정해져 있었다.

밥을 시켜 먹고 있는데 옆자리의 아저씨들이 우리가 촌에서 온 것을 알고는 말을 붙였다. 나는 책을 사러 왔다는 말을 하고 찾아갈 고모네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야, 너희들 멀리서 왔구나!” 그러면서 쪽지를 받아 든 그는 “어, 이거 너무 멀잖아.” 했다. 고모네 집

까지는 걸어서 한 시간도 더 걸린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군청 직원인 그 아저씨들을 따라가 군청 숙직실에서 자고 아침밥까지 얻어 먹었다. 이튿날 다시 서점에 가서 이번에는 동화책들을 뒤졌는데, <포도와 구슬>로 익숙해 있던 현덕의 소설집 《남생이》를 어린이물로 알고 산 것도 이때다.

㉠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던 것 같다. 먼지가 폭삭대는 길, 강가의 널따란 채마밭, 강바람에 날리던 살구 꽃잎들. 나루터의 늙은 사공, 새파란 강물에 드문드문 박힌 노랑고 흰 돛을 단 배들……. 이때 본 이런 것들은 군청 마당의 늙은 느티나무와 마음씨 좋은 직원의 웃는 모습, 그리고 현덕의 소설 <군맹(群盲)> 속의 인물들인 만수 또는 점숙의 모습과 함께 아직도 내 뇌리에 짙은 색깔의 그림으로 박혀 있다.

16 (가)의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목의 ‘상처’는 인생의 고난, 시련을 뜻한다.
- ② 어린 매화나무에 피는 ‘꽃’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의미한다.
- ③ ‘새 진물이 번지는가’는 고목의 고통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④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는 고목의 울통불통하고 거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⑤ ‘부적’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목이 고통을 치유해 줄 존재처럼 보일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17 (가)에 담긴 시인의 심미적 인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 ②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③ 잘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 ④ 서당 개 삼 년에 풍월을 읊는다.
- 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18 (나)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글쓴이가 이 글을 쓰면서 계획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주장을 강조해야겠어.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의 내용을 전개해야겠어.
- ③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 ④ 시의 한 구절을 활용하여 상황에 따른 심리를 강조해야겠어.
- ⑤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해야겠어.

19 (나)에 담긴 글쓴이의 심미적 인식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②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은 자신에게 도전이 된다.
- ③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
- ④ 사회적 성취보다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
- 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서술형

20 ㉠과 같은 기분을 느낀 까닭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 군청 직원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쓸 것
- '~(아)기 때문이다.'의 형식으로 쓸 것

21 (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가)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환상적인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 ② (가)는 청유형 문장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가)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글쓴이의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나)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며 종합하고 있다.

22 (가)와 (나)를 읽고 난 뒤의 반응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가)와 (나)는 작가가 삶에서 느낀 아름다움에 관해 표현했어.
- ② (가)와 (나)는 모두 역설 표현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어.
- ③ (나)에서는 집으로 돌아올 때 느꼈던 즐거운 마음을 풍경 묘사로 드러내고 있어.
- ④ (나)에서 주인공이 길을 걸으며 본 풍경들, 군청 직원들의 배려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줬어.
- ⑤ (가)와 (나)를 읽고 나니까 나도 이와 같은 아름다움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

23 심미적 체험으로서의 문학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가는 문학 작품을 통해 경험에서 얻은 심미적 인식을 독자와 공유한다.
- ② 예쁜 것, 좋은 경험만이 심미적 인식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문학 작품이 된다.
- ③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으며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이를 다른 독자와 공유한다.
- ④ 문학 작품은 인간과 세계의 진실에 관한 심미적 인식이 형상화된 언어 예술이다.
- ⑤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으며 작가의 심미적 인식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한다.